

첫 번째 특별 게재호를 자축하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는 우리 학회의 자부심입니다. 많은 학회원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결과를 검증받고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연구와 더욱 질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있었던 학술진흥재단 평가에서도 등재지로서의 위치를 굳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지의 발전에 힘입어 이번호에는 우리 학회지 최초로 특별 게재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게재란은 해당 주제에 대한 학회원들의 학술역량을 반영하고, 추후 그 주제에 대한 연구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게재란 첫 호의 주제는 "한국적 상담모형"입니다. 이는 편집위원들 뿐 아니라 학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적 상담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오면서도 이를 실천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그 성과를 종합하는 기회에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호는 특별초청원고 1편 외에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4편의 논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적 상담모형이라는 주제 하에서도 다양한 연구주제의 원고가 실리게 된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논문들은 앞으로 한국적 상담모형에 대해 보다 다양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번 호 초청원고 집필자로 추천되신 윤호균 교수님(역대회장)은 평생 한국형 상담모형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우리 학계의 자랑이십니다. 집필을 허락해 주신 윤호균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번 기획에 동참해 주신 기고자들, 학회지 평가가 엄격하여 게재결정이 되지 않은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추후 연구진전이 되는 대로 다시 시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첫 호 발간에 누구보다 수고를 하신 분은 편집위원장님이신 전북대학교의 김정희 교수님(역대회장)과 부위원장님이신 아주대학교의 신희천 교수님, 그리고 한소영 간사와 편집위원들입니다. 첫 시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잘 마무리 해주신 편집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장 이규미